# 지속가능성을 위한 평생교육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이진수†

**요 약**

최근 양적 성장의 한계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 외에 인권, 교육, 보건 등의 비경제적 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은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의 주체인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평생교육의 방향을 모형화 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사이버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육모형은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버대학의 발전을 위해 공공성, 개방성, 통합성을 지향해야 한다. 이상의 교육방향에 근거하여 기초교양 교육, 대중화, 국제와, 특성화, 실용화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교육, 평생교육, 사이버대학

# An Exploratory Study on Sustainable Lifelong Education Model -Focusing the Cyber University in Korea-

Jin-Soo Lee†

**ABSTRACT**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economic growth since quantitative growth reached its limit. It is claimed that a non-economic value such as human right, education, welfare, and health is a vital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ost of all, educ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key to build up sustainable society. E-learning could make it easier for all to spread equal education out. This paper suggests a model for cyber universities which can explain how much cyber universities contribute to impro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hat social responsibilities cyber university can carry out as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Cyber universities in Korea seem to aim quasipublic, openness, and integration to solve the educational issues we face and uncover their growth potential. Cyber universities will contribute to build sustainable society through giving a huge education opportunities for all based on boosting liberal art education, mass-education, glob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Keyword** : Sustainable, ESD, Lifelong education, Cyber university.

† 정 회 원: 원광디지털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0년 08월 13일, 심사완료: 2010년 11월 05일
* 본 논문은 2010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1. 서 론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의한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급속한 발전을 재촉해 왔다. 그 결과 자연의 황폐화와 고갈은 지금의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생태환경의 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화두로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개념은 경제지표 이상의 사회-환경-경제의 세 가지 축을 고려하는 생태환경 차원[1]에서 접근해야 한다. 생태환경 차원에서 보면 개인이나 단위조직은 독립된 개체임과 동시에 전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적 요소로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가 분리되지 않으며 사회체제 및 구조 그리고 경제제도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순환구조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전 영역에서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그동안 지속가능성은 각기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 발전 교육 등의 개념으로 파생되었으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념적 합의와 실천의지를 확인해 왔다.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 풍요, 사회적 신뢰, 쾌적한 환경, 높은 문화의식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기대와 기회 제공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소한의 경제적 삶의 질 보장, 의료보건 수준의 확보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지적수준 등을 갖춘 상태로 빈곤과 질병과 무지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가난 극복, 사회적 불평등 치유, 인간가치 실현,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자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력(自力)이란 정신적 자각(自覺), 경제적 자립(自立), 육체적 자활(自活)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닌 인간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근원적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성장이 경제적 빈곤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의 무지와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적수준 향상과 사회적 갈등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함께 요구되는 바, 그 기저에 교육은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과 사회발전은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지속가능한 사회란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실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효율성의 문제가 뒤따른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평생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물리적·공간적·시간적 장애를 극복해야 교육소외계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른바 녹색교육, 녹색학습으로 일컫는 사이버교육은 사이버 매체에 의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흡수하여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평생교육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기반구축에 사이버대학의 역할은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사이버교육의 가능

1)일반적으로 환경(environment)이란 시스템의 주체를 둘러싸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을 의미한다. 반면에 생태환경(ecological environment)이란 사회, 환경, 경제 등의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사이버대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데 사이버대학이 사회구성체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조명하고, 나아가 사이버대학이 지향해야 할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사이버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교육적 좌표를 재설정하는 기회이며 나아가 사이버대학의 새로운 도약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추진주체의 모호함과 개념적 혼란을 극복하는데 사이버대학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공동의 미래와 지속가능성

### 2.1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

로마클럽은 1972년 맬더스가 제기한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 성장에 따른 우려와 함께 성장위주의 정책, 산업화의 팽창은 종국에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후 로마클럽 보고서는 각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더불어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다양한 국제협력과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담의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지구헌장'(Rio Earth Summit)의 채택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른바 그린 라운드(Green Round)로 불리는 리우지구헌장은 '인간중심의 개발', '빈곤퇴치', '현재와 미래 세대들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원칙을 제기하였다. 이후 1995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자연생태계와 사회생태계의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표명하였다. 또한 1996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사회통합, 고용창출, 빈곤퇴치" 문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고용 없는 성장, 빈민층이 제외된 성장, 미래가 없는 성장 등에 대해 우려하고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인간개발간의 균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는 '지속가능성'의 실천은 자연환경보호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개인의 선행의지나 한 국가 단위의 사회·경제·교육 등의 제반 정책을 '인류공동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로 재인식시켜 주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여러 국제단체나 연구자에 의해 개념적으로 정의되고 실천방향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된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정책과 발전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이란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 이홍균(2000)은 『우리의 공동 미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념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실현가능성을 성장의 제한에 두지 않고 환경과 성장,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이며, '지속가능성'은 엄밀하게 자연과 사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홍균은 '지속가능성'은 사회와 자연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상위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제기한 『우리 공동의 미래』는 오히려 지속가능성의 엄밀한 개념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주장을 하는 자기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이 '지속발전 개념'이 환경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성장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장이 있어야 환경 보호가 가능한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데서 근원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모호성이나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념적 오류의 지적이나 이해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

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차원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으나 경제성장의 중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경제성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경제성장 없이 빈곤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의 생활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고 자원을 남용하게 되어 환경의 더욱 피폐해지고 더욱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늘 가난한 사람은 내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할 만한 현실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양적인 성장의 한계를 제기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근원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치관과 관련된다. 모든 생명의 터전인 자연생태계는 사용 후 복원에 일정한 조건과 시간이 요구되는 반면 사람이 주도하는 사회생태계는 인위적으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을 추구한다. 단순재생산의 구조인 자연생태계에 비해 사회생태계는 확대재생산을 추구함으로써 자연을 잠식하게 되고 이러한 잠식과정은 환경훼손과 생명의 위협을 초래한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생태계의 범주를 넘어선 사회생태계의 확대를 가져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다. 결국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의 문제, 자연을 둘러싼 사회형평의 문제, 개발가치와 보전가치를 둘러싼 공공정책의 문제, 공공이익과 사적이익 간의 상충에 따른 도덕성의 문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사회정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환경파괴에 따른 성장의 한계가 자연생태계와 사회생태계 간의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도적, 정책적 보완에 의한 사회공학적 조절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공학적 조절이란 물적 가치 창출의 경영활동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자원과 부의 재분배를 포함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적 노력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지구적 차원의 연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2.2 공공의 이해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는 하나이지만 많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체는 전체보다는 개체의 생존과 번영을 우선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빈곤과 무지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집단 간의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시간적으로 미래세대와 연결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자원의 소비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 사회의 경제문제는 정치·사회·교육 등의 제반 영역과 관련되어 있고, 국가의 발전은 다른 국가의 제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선진국의 경제는 개발도상국가의 자원을 필요로 하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은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지원과 원조 없이는 어렵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성장은 부국을 더욱 부유하고 빈국을 더욱 가난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무지는 결국 세계화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디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적 성장으로 제한될 수 없고, 선진국가도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고립된 채 발전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방향정립이 필요하다(세계환경발전위원회, 2005).

선진국이나 부유층은 개발도상국이나 빈곤층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전체경제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개인, 조직, 나아가 국가차원의 공동체 의식 하에 개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 요소들-조직, 공동체, 국가 등-간에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성별, 나이, 계층 등을 초월한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 수용과 적극적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국제적 협약이 활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성장에 대한 근시안적 오류에서 벗어

나 우리의 현실을 인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점차 국가간 환경, 정치, 경제 등의 영역에서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환경과 경제가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지구적 차원에서 촘촘히 연결되고 있다. 인류는 이미 하나의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고 모든 분야는 서로 관계하고 있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의 활동이 서로를 바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류 전체의 합의와 협력은 개인과 조직이 사회구성인자로써 '사적' 이익추구를 넘어 '공적' 이익, 즉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의미한다. 그동안 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시장경제 체제는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적이익 추구를 장려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은 간과되었다. 더구나 자유시장 기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자연과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지역, 계층, 인종,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합리적 경제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적이윤 추구의 정당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논지 외에 가치관의 문제로 연결된다. 자유방임에 의한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한 부작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게 되었고 이는 개인의 경제적 가치 외에 공적 이익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최근 기업 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SM: Sustainable Management)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이윤추구가 기업경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 공적이익 추구가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며 과연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업의 본질적인 임무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능력이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윤리경영, 환경경영, 공익경영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세대 간 형평성, 양성평등, 사회적 관용, 문화 다양성, 빈곤퇴치, 환경보존, 지속가능한 도시화,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등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이념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구조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가치관을 변화·증진시키는 것으로 특히 인권에 대한 존중과 사회경제 정의에 대한 헌신, 다음 세대의 권리에 대한 존중, 공동체와 문화 다양성, 관용과 비폭력의 문화를 존중하는 가치관의 증진을 강조한다(UNESCO, 2009). 최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과 정부,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실천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2005년 유네스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개년 교육(Decade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출범하여 교육부문의 새로운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 관행의 방향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력과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도 한국유네스코 및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학술연구 및 상호교류가 시작되었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비전 수정, 행동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전체적(hoilstic)이고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접근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개발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행동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3 교육 :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으로써의 사회자본

세계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했는가 아니면 저해했는가. 세계화는 모든 국가를 하나로 연결하도록 동기를 제공했지만 지역 간, 계층 간, 인종 간, 국가 간 불균형의 부작용을 피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균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개방과 시장경제가 개발도상국의 유일한 성장엔진으로 제기되고, 경제성장과 무역이 세계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도매급 개혁'이라 칭한 토마스 프리드먼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 성장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사회의 네

가지 핵심 측면인 사회인프라, 규제기관, 교육, 그리고 문화를 업그레이드하여 가능한 마찰을 줄이는 이른바 '소매급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토마스 프리드먼, 2005). '소매급 개혁'이란 최선의 법적,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브룬틀란트 보고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개인과 조직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자원고갈이나 환경압박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상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므로 그 해법으로 부분적이나마 교육과 제도개선 그리고 법적 강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사람들의 삶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의식, 태도,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인의 선행의지와 사회구조 및 제도적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선행의지와 사회구조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사회자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사회자본이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간의 신뢰관계, 사회적 연대의식,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조정과 협력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네트워크와 사회의 문화, 신뢰수준, 사회규범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헌신 등의 사회 효율성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자본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은 공동체의 문제로 공동체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관계, 사회학습, 사화자산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인적 이기심과 경쟁에 따른 갈등에서 야기된 사회문제를 경제제도 개선이나 경제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적 빈곤 외에 양극화에 의한 사회분열, 질병, 교육, 인권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개인 및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으로 비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구혜정(2002)은 사회적 양극화, 개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자본으로써의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사회자본으로써의 교육은 개인의 지적 역량을 넘어 개인주의적 사회질서의 한계인 공동체적 요소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결합을 포함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한 공동체 의식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학습과 학습된 개인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적 요인으로 교육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회적 장치의 시발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기존의 경쟁방식의 교육에서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조건에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습인프라 구축 등의 사회적 지원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 3.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3.1 지속가능개발교육의 이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1980년대 사회·경제적 발전과 환경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의 역할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었다. 교육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육은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이기보다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ESD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교육과 학습으로 지속가능한 태도와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과 계몽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ESD은 기존교육제도의 특정교과목이나 별도의 분야가 아니라 학제적 접근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학습을 통해 현실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책임을 지도록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그렇다면 기존 교육과 ESD을 구별하는 기준을 무엇인가. ESD에 관한 최초 개념인 「의제 21」의 36장 "교육, 공공의 인식, 훈련의 증진"에 따르면 ESD은 기존교육의 신장,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교

육전반의 재정향, 공공의 이해와 인식제고, 훈련의 네 가지 요인에 의해 추진된다.

첫째, 기초교육의 신장은 기초교육은 내용과 연한에 있어서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은 기초교육으로 삼는 경우 있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수행하는 단순한 기초교육의 증진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교육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재정향되어야 한다. 즉, 대중의 참여,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촉진, 지지하는 기능, 가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와 정보의 조직과 해석능력, 문제제기 능력, 지역사회가 직면한 쟁점분석 능력 등을 길러야 한다.

둘째, 기존교육의 재정향은 ESD을 위해 모든 부문에 걸쳐 요구되는 변화로써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생활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교수학습관련 지식, 기능, 관점, 가치를 포함하다. 따라서 기존교육의 재정향은 교육의 양적증가 뿐 아니라 적합성과 적절성의 문제이기도 한다.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교육의 재정향은 전체 정규교육체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공의 이해와 인식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적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구성원을 양성해야 한다.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잠재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역사적 식견이 필요하다.

넷째, 훈련은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 환경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소양은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데, 훈련은 지속가능성 계획의 실천방법과 절차 및 관련 기능을 익혀서 사회적 전환하는 과정이다.

ESD이란 지역과 교육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환경 및 기후변화, 건강과 질병, 인구와 식량, 혹은 전쟁과 테러 방지,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 등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이와 같이 ESD의 주제는 포괄적이며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을 찾아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 3.2 ESD와 사이버교육

교육환경이 다양화되고 첨단기술이 활용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e-learning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learning의 사회적 확산은 사이버대학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였다. 사이버대학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수업진행 및 각종 학사관리 등의 대학의 중요 기능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교육체제를 갖춘 고등교육형태의 기관이다.(주영주 외 2004).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의 진화와 발전은 오늘날 e-learning의 확산과 이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성장을 가져왔다.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 내용과 교육 전달방식은 사회변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재와 같은 교육방식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Visser(1997)는 수세기에 걸친 교육부문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억 명이 문맹이고 13억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다수의 학생들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식을 배우고 있으며 어제의 해결책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방식의 교육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재인용, 김영록 외, 2009). 경제발전의 가속화가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높은 교육수준이 항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에 필요한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다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취를 담보하지 못하며, 기존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은 기존교육이 갖는 한계극복과 새로운 교육의 실천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인권으로써의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요건이지만 오늘날에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형식교육의 한계에 대한 개념으로써의 ESD는 형식교육 뿐 아니라 기술교육, 대

중인식,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학습을 포괄한다(유네스코 2009). 따라서 ESD는 태도, 가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사는 생태환경과의 개인적·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ESD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모델을 수용하여 교육이 단순히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전달'하거나 시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적 역할이 아닌 지속가능성의 도전과제에 참신하고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UNESCO, 2009) 그러나 ESD가 지닌 다양한 교육스펙트럼이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교육모델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는 기존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교육의 실천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Pass(2004)는 기존의 교육방식이 ESD에 필요한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의 교육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ESD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학습환경에 정보통신기술(ICT)의 통합을 제시했다(재인용, 김영록 외, 2009). ESD에 필요한 교육적 변화를 ICT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문제 및 과제해결 능력에 집중하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과 협력, 연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ICT의 지원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ICT의 활용은 초기에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컴퓨터 보급과 IT 인프라의 확산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ICT 활용의 수준과 범위가 높아졌다. 최근 ICT는 정규교육체계의 전통적 방식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원격학습은 ESD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므로 ESD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의 강력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강력한 학습도구로 등장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IT 인프라 보급이 확산되면서 ICT를 활용한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e-learning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e-learning 산업규모는 1조 7천 267억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고 2004년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 정규교육기관의 e-learning 도입 및 활용도 2004년 정부의 e-learning 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교육기관의 e-learning 이용비율은 76.8%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4년제 대학이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식경제부, 2008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 오늘날 e-learning의 확산은 사이버대학의 성장을 가져왔고 평생교육의 저변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 3.3 사이버대학의 과제와 미래

ESD의 이행은 제도권 내의 형식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부기관, 지역학습센터 등의 무형식 교육, 그리고 텔레비전,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비형식 교육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ESD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식, 무형식, 비형식의 교육방식이 특정세대와 집단의 각기 적합한 영역에서 교육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체적 실천이 될 것이다.

ESD에서 초·중등교육의 재정향의 필요성은 주목 받아왔으나 대학수준에서의 재정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특히 기존교육 제도에서 벗어난 성인교육 부문에서의 재정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주체이며 공교육 기관인 사이버대학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출범 10 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물음은 시기적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은 지식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IT 기반의 정보인프라 보급에 힘입어 온라인 방식에 의한 평생학습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 따라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출발하여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1년 9개 대학으로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현재 4년제 대학 17개와 전문학위과정 2개 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매년 입학생의 증가로 양

적인 성장에 따라 평생교육의 대중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기초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안고 출발하였다. 교육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기초는 충실한 교육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e-learning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의 성장과정은 사이버대학 관련 연구 성과에 반영되어 있다. 사이버대학 초기에는 원격대학 실태조사나 모니터링 평가연구(장익 외, 2002), 법적 제도적 장비연구(장익 외, 2003) 등이 진행되었으며, 원격대학 현황연구 및 질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혜영・이병원, 2004; 오은진, 2001). 이후 교육과정 특성화(이준, 2005)에 의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나아가 이후 분야별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이 연구가 세분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혜영 외, 2010)

이와 같이, 사이버대학은 교육과정, 대학운영의 특성화, 콘텐츠 제작, 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대학 관련 법제 등 사이버 교육의 성공을 위한 내적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강인원 외, 2005; 권문택, 2005; 이준 외, 2004; 이준, 2005; 임연욱, 2002; 허종렬, 2002). 또한 사이버대학의 성과는 사이버대학의 규모의 성장, 양질의 콘텐츠 개발 등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육성, 교육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으로 사회적 욕구에 대한 사회적 성과를 가져왔다(장은경 외, 2006; 박준철, 2006). 이러한 노력은 사이버교육의 내실화와 사이버대학의 사회적 위상정립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기관 이관 등의 결실을 가져와 사회적 인지도와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아졌다. 특히 2010년 사이버대학원의 설치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원격대학협의회, 2009).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의 현황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는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안정화와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으로 이어졌다. 향후 전 세계 고등교육 수요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기반 교육이 담당하게 되며, '글로벌 가상대학'의 등장에 대한 전망도 예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기초하여 사이버대학의 새로운 전기를 지향하는 연구방향이 제시될 시점에 와 있다.

ESD을 위해 사이버대학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동안 사이버대학의 과제는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사이버대학의 발전을 위해 선진대학의 성공사례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전략적 제휴, 그리고 대학발전에 필요한 수익성 개발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정인성, 2003; 주영주 외, 2006). 그러나 ESD 차원에서 사이버대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경쟁적 성장모형보다 사이버대학의 본래 교육이념을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현재의 성장'을 나누는 '공유'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인 재교육 중심의 사이버대학은 ESD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대학의 교육이념과 현재 사이버대학이 처한 여건 하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ESD을 위한 사이버대학의 노력은 기존교육제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인재 양성 및 녹색성장에 필요한 과학영재교육, IT, BT, NT 등의 융합학문 인재 등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녹색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녹색인재 양성을 위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전체 구성원의 녹색역량을 강화하는 뿌리 역할을 수행하며 고등교육은 녹색기술 인력과 녹색서비스 인력 양성을 양성하는 열매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진미석, 2010).

그동안 사이버대학은 대중화, 실용화, 특성화, 차별화, 국제화 전략 하에 대학발전을 추진해 왔고 향후에도 여전히 의미있는 발전모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대학이 지닌 특성을 바탕으로 ESD의 최초개념인 교육, 공공인식, 훈련의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인 '현 상태의 변화와 전환', '지속가능하지 않은 관행에 대한 비판적 사고', '전체적인 접근과 통합적 반성', '미래지향적

비전과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국제이해와 세계시민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킬 수 있는가. 사이버대학은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교육이 직면한 현실 문제 해결과 사이버대학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ESD이 지향하는 기본원칙에 비춰 볼 때, 사이버대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공공성, 개방성, 통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성은 지속가능성이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공동의 실천에서 출발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지나친 개인주의적 사고, 개인화된 학습, 경쟁적 성장은 빈곤과 무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했으며, 사회적 정의와 자원의 분배도 실패했다. 탁월한 소수에 의한 사회가 아닌 평범한 다수의 역할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상호간 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참여와 주인의식, 공동체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개인에게 잠재력을 개발하여 성장을 촉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기재이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의 가치를 유지·존속하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해 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성장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교육은 공공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ESD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중요한 요인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 나아가 글로벌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평생교육은 성인의 직업교육이나 기술습득과 같은 실용교육에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적, 정서적,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계속교육이며 시민교육의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의 지적욕구와 여가, 정서함양을 위해 교양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교육내용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교육의 양의 문제 보다 교육의 질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개방성은 교육의 대상, 유형, 형태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학문의 분야, 과정, 교육수준 등에서 학습참여자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선택의 범위를 넓혀 주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한승희(2004)는 평생교육은 교육의 내용, 범위, 전달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고 다양한 옵션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학습기간이나 전공선택 등에 있어서 기존의 대학기준과 달리 보다 유연하게 학습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은 일차적으로 개방성에 바탕하여 교육의 수혜계층을 확대하는데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의 성과가 형식적인 틀을 벗어남으로써 교육의 양적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교육시장에 성장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과 지역은 상당히 존재한다.

사이버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버대학에서 지향하는 질적 성장은 수직적 우위를 위한 고급인재 양성에 치중할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ESD에서 교육의 양적 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 평생교육을 통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성인의 재교육이 반드시 교육수준의 질적 변화나 상위 학위과정의 참여에 제한될 수 없다. 성인의 재교육은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수혜 기회가 용이하고 학습자의 유연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통합성은 지속가능성 개념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개념적으로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며,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통합의 원리 하에서 우리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을 추구한다. 즉, 계층간 공존으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고, 환경-경제-사회가 수평적으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공존으로 세대 간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기술적·경제적 차원의 새로운 동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가치관의 전향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경제개발과 성장 인자로 첨단기술 개발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ESD의 기본원칙으

로 '교육, 시민의식, 훈련'이 강조된 것이다. 향후 사이버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ESD의 동인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방법에 관련한 통합은 '관계'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형성을 통한 나눔'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교육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매체를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영역과 방법과 참여자를 확장시키고 다양화 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know-what)에서 교육의 방법(know-how), 그리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know-where)에 대한 물음으로 관심이 영역이 변화하는 것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대학은 블랜디드 러닝의 도입으로 오프라인 교육방식을 병행하는 추세에 있다. 사이버대학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교육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사이버공동체를 매개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연계는 오프라인에서의 의사소통과 신뢰를 강화시켜 주고, 기존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송경재, 2006; 이진수, 2007).

사이버대학의 네트워킹은 이론과 실무의 통합 차원에서 산학협력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해외대학의 경우 World Campus나 Global Campus의 개념으로 대학 간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추세이다. 국내 사이버대학도 국내 대학 간 네트워크 형성과 나아가 해외대학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DS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인 파트너십은 물론 정부,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8).

## 4. 지속가능성을 위한 평생교육모형

### 4.1. 평생교육모형의 평가 기준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인차원의 노력을 넘어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최소한의 결핍 상태를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역량 개발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창출 능력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창출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며 또한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해야 하는바 교육의 영역에서는 ESD을 전개할 수 있다. ESD은 기존의 형식교육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을 지향해야 하며 평생학습의 효율적 접근은 사이버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일반적 개념을 고찰하여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교육부문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검토하고 전통적 교육이 지닌 한계점을 사이버 교육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의 물음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으로써의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사이버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노력의 연계성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SD은 교육 그 자체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단이며,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식, 가치, 행동, 의식 등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형태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면, 궁극적인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평생교육 주체인 사이버대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수의 천재 양성이 아닌 성인 학습자들이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통합적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소수 인재의 기술적·경제적 능력이 아닌 대다수의 성인이 보편적인 지식을 익히고 실행하도록 하는 교육의 보편성을 추구한다. 이는 전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평생교육 이념에 반영되어 있다.

온라인 방식의 교육인프라는 시간적·공간적 이동의 제약을 극복하도록 하는 교육수단을 제공한다. 평생학습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무엇인가.

평생교육모형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하나는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달성했는가에 대한 모형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목적달성에 따른 현실적 제약조건의 극복과 이와 관련된 경제적 희생에 따른 소용비용에 관련된 효율성(efficiency)이다.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조건으로 목표달성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이버교육이 효율성에만 추구할 때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근본 목적을 소홀히 여길 수 있으며,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그 실지효과는 효율성을 통해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의 교육모형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사이버대학의 사이버교육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사이버대학이 향후 차원 높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념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대학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대학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전략적 접근이었다면,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방향을 재점검하여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교육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한다.

### 4.2 사이버대학의 평생교육 모형

평생학습사회가 구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주도적인 자기학습을 구현하는데 있다. 이에 본 평생학습 모형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무지를 극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이념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이에 평생학습 모형의 궁극적 목표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의 교육이념은 교육을 통한 인간상 확립과 교육기회 균등화,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인 양성, 수평적 교육기회 확대, 평생학습사회 구현 등과 같이 교육평등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수행해야 하는가. 우리사회에서 사이버대학은 교육내용면에서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전달과 관련된 형식면에서는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토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이버대학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지향점은 ESD의 주체로써 평생교육 이념의 구현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대학의 교육방향은 앞서 지적한 공공성, 개방성, 통합성에 근거하여 기초교양교육, 대중화, 국제화, 특성화, 실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초 교양교육은 교육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추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고등교육 기관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양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이 부족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가 양성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경쟁위주 교육에서 미흡했던 윤리, 도덕, 신뢰, 가치우선, 협력, 책임 등이 우선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새로운 성장'의 기재로 전략될 우려가 있다. 최근 공학, 법학을 비롯한 경영학 등의 학문에 공학윤리, 법 윤리, 경영윤리 등의 교육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특히 지속가능교육의 핵심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질의 교육이란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권으로써의 교육으로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적 구성원으로써의 공동체적 일체감과 세계시민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 인문학이 교육의 핵심주제로 등장하고 중시되는 추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중화는 사이버교육의 장점으로 교육기회의 확대를 용이하게 한다. 사이버교육의 장점인 비용, 시간, 접근의 용이성 등은 교육의 수월성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발달에 따른 불평등 구조는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사회의 교육은 양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다문화 가

정, 탈북자, 장애우, 외국인 근로자 등-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소외 계층, 교육소외 지역, 사회적 약자 층을 포함한 교육수혜 계층이 충분히 확산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쟁위주의 교육은 전략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를 통해 교육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우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는 더 우월한 교육의 부재보다 의무교육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교육의 대중화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교육기회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

국제화는 교육의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사이버대학의 성장전략에서도 국제화는 핵심전략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에 적합한 성장요인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의 국제화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세계교육시장의 진출과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전략을 의미했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의 국제화는 이러닝의 표준화 및 해외진출의 선점 등의 차원에서 실천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 주체로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국제화는 다른 의미와 역할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이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여 첨단기술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사이버대학이 지닌 교육적 노하우나 지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제한된 제 3세계나 개발도상국가의 진출은 지구적 차원에서 교육기회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사이버대학의 국제화 전략이 상대적 우월성의 확보가 아니라 교육기회를 폭 넓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사이버대학의 기존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오히려 사이버대학의 사회공헌은 물론 사이버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진 해외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수직적 발전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이버대학의 국제화는 수평적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즉, 사이버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사이버대학의 질적 수준의 문제로 한정시켜 선진 교육시장의 진입을 목표한 것을 전환하여 교육기회의 확산과 저변확대라는 양적인 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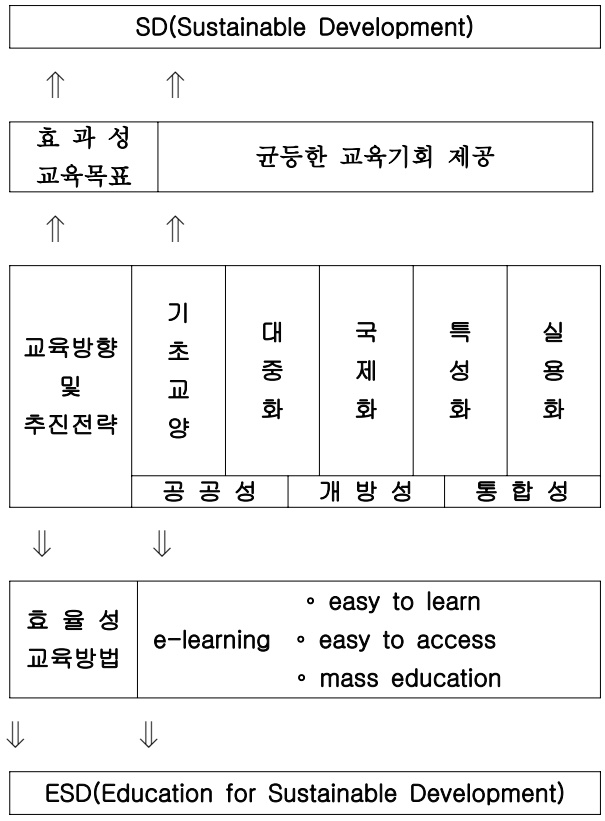
조직의 성장 동력은 조직이 보유한 핵심역량에 기초한다. 특히 교육수요가 다양해지고 교육활동의 개별 추세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교육에서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실용화는 교육욕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학의 고유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사이버대학은 기술주기의 단축에 따른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성인대상의 재교육은 현실적으로 직업기술 및 현장에 적합한 실질적인 교육을 요구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용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실용화는 실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현실적용과 응용력이다. 현실적용과 응용은 교육의 실질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교육의 실용성과 관련된다.

교육의 실용성은 내실화를 통해 교육의 가치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성인중심의 재교육이 주를 이루는 사이버대학은 학위나 형식적인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에 머무르게 된다면 평생학습의 본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며,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각종 인증제나 자격증 제도가 교육의 내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형식교육에 떨어져 평생교육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게 된다. 교육이 제도와 형식에 묶이면 외형적 성과에 집착하여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도외시하기 쉽다.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의 실용성은 교육의 내재적 가치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모든 사람이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성함양에 기초해야 한다. 그 외에도 교육의 대중화, 국제화, 실용화, 특성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생교육의 성공여부는 사이버 방식의 교육매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태도에 달려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사이버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주요개념간의 관련성을 <그림 1>의 모형으로 구조화 할 수 있다.




<그림 1> 사이버대학의 평생교육 모형

## 5. 결 론

우리가 직면한 양적인 성장의 한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다. 이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권, 교육, 보건 등의 비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전 생애에 걸쳐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으로 평생교육의 저변확대를 가져온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기대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교육이 기저변수로 인식됨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능력이 사회발전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주체인 사이버대학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인가. 이는 사회구성체로써의 사이버대학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은 제도권과 비제도권 사이에서 평생교육을 주체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평생교육의 현실을 몸소 체험해 왔다. 특히 우리사회의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을 교육활동에 시험하면서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사이버대학은 정부의 정책적·법률적 근거 하에서 현실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평생교육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추진사업의 대상이나 행정적 지원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교육은 법적 규제에 의한 소극적인 반응이나 정책적인 지원과 같은 외부 동인이 아니라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육적 소명과 같은 내적 동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사이버대학의 발전은 사이버대학의 성장의 크기가 아니라 사회구성체로써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사회공헌의 여부로 존재의 의미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대학이 지향할 방향은 기존의 경쟁적 '성장모형'이 아닌 사이버대학이 소유한 지적 노하우를 폭 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야 한다. 과거의 '성장모형'에서 '공유모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스스로 확장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반영하여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교육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사이버대학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산하는데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사이버대학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개방성, 통합성의 교육을 지향하고 추진전략으로 기초교양교육을 통한 인성의

함양, 교육기회의 확산을 위한 대중화, 세계적 차원에서 교육기회의 확산을 추구하는 국제화, 고유의 대학이념을 실현하고 장기적인 대학발전을 도모하는 특성화, 나아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실용화를 제기하였다. 웹기반의 교육방식은 평생교육의 이념과 추진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학습의 용이성, 접근의 용이성, 교육의 대중화로 효율성을 제공해 준다.

교육은 '인구의 질'에 관한 것으로 경제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사회발전의 자생력을 키워준다. 이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기저로 역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동인이 된다.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을 포괄하며, 저비용·고효율의 녹색학습으로 자연과 사회의 공존과 국가, 지역, 인종, 계층 간의 불평등의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공존의 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은 개체 독자적인 성장보다 전체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성장의 의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향후 사이버대학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수행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사회발전과 더불어 공존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이홍균(2000),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열린체계와 닫힌체계," **한국사회학** 제34집, pp.807-831.

[2] 세계환경발전위원회(2005), **우리 공동의 미래**, 조형준, 홍성태 엮음, 새물결

[3] 토마스 L. 프리드먼(2005), **세계는 평평하다**, 창해.

[4] 구혜정(2002), 전환기의 평생교육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만남, **한국교육학연구** 8(20, pp.275-296.

[5] 한국유네스코위원회(2009), 지속가능발전교육 맥락과 구조의 검토.

[6] 김영록, 장준원(2009), '지속가능발전 교육(ESD)'을 위한 ICT 활용 방안 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KERIS 이슈리포트 연구자료** RM 2009-38

[7] 김혜영·이병원(2004), "원격대학의 웹기반 강의평가 요인의 개선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35, pp.409-429.

[8] 지식경제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8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

[9] 강인원, 최지호, 이성근(2005), "사이버대학의 e-learning 서비스에서 신뢰차원이 학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4권 제4호, pp.1143-1164.

[10] 권문택(2005),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사이버대학 정보시스템구축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237-245.

[11]이준, 정민승, 임연욱, 이경순(2004), "원격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한국교육**, 제31권 제22호, pp.391-414.

[12]이준(2005)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한 사이버대학 발전 방안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8권 제1호, pp.43-53.

[13] 임연욱(2002), "원격대학교육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한 제언", **교육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pp.245-266.

[14] 임연욱, 허희옥, 이인숙, 천세영(2002), "원격대학교의 질 관리 방안 탐색을 위한 학사 및 조직 모형 비교," 한국교육, vol.29, no.2, pp.523-547.

[15] 허종렬(2002), "원격대학 관련 법령 정비 방안," **교육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pp.267-296.

[16] 장은경·정영란·서유경·유평준·염철현(2006), 원격대학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CR 2006-37.

[17]박준철(2006), 사이버대학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pp.215-240.

[18]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2009),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립에 관한 수요조사 결과분석표, 교육정책연구** 2009-지정-1.

[19] 장익·장수정·서유경·이경순·임정훈

(2002), 사이버대학 모니터링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RR 2002-2.
[20] 장익・허종렬・이광진(2003),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 원격대학 관련 법제정비 방안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 2003-6.
[21] 정인성(2002), "해외 사이버 교육의 운영 형태 및 성공 요인 분석", **교육공학연구**, 제18권 제1호, pp.215-233.
[22] 주영주, 김은영(2004), "사이버대학의 강좌평가를 위한 측정도구개발", **교육과학연구**, 제35권(2), pp.1-21.
[23] 주영주, 장정훈(2006), "국내 원격대학의 질 개선을 위한 Malcolm Baldrige 기준 적용 가능성 탐색", **직업능력개발연구**, 제9권(2), pp.245-272.
[24] 진미석(2010), "녹색성장과 녹색인재" 2010 지속가능발전교육 콜로퀴엄 시리즈.
[25] 한승희(2004), "학력의 재해석을 통한 개방적 평생교육체제 설계", **한국교육연구,** 제10권2호, pp.64-101.
[26] 송경재(2006), 자발적 시민참여 사이버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19, pp.221-255.
[27] 오은진(2001), '원격대학의 실태분석 및 개선, 직업능력개발연구, 4(2), pp.123-143.
[28] 이진수(2007), "온라인교육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vol;.20, no.3 pp.1169-1192.
[29]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방안.
[30] 한국유네스코위원회(2007),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이 진 수**

1987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1990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2000 원광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2004~원광디지털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서비스경영, 이-러닝